

“한리봉, 진도군에서 고소득 작물로”



제주도 특산물로 아열대 과일인 한리봉이 진도군에서 주렁주렁 결실을 맺었다.

진도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연간 1,200여 시간 많은 일조량과 적당한 강수량, 해양성 기후로 토양이 비옥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최근 수확 결과 13~15°Bx(브릭스) 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군이 한리봉 재배에 나선 것은 지역의 대표 발작물인 진도 대과에 비해 평균 소득이 높아 대체 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08년 1농가(0.08ha)를 시작으로 올해는 23농가(5ha)로 재배 농가가 확대됐으며, 군은 '진도 황금봉'으로 상표 등록과 함께 진도 행복팍 하우스 등 시설 하우스 지원

대과 대체작물, 진도지역 새소득원으로 '진도 황금봉' 상표 등록 후 본격 출하

으로 기업형 시설 재배 농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또 당도 13°Bx 이상, 일정한 크기 이상의 규격 과일만을 출하하도록 유도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를 진도 황금봉이 명품 과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진도 황금봉이 기후 변화를 대비한 품목으로서 뿐만 아니라 신기술 보급 등 진도군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품종인 '진도 황금봉'은 속이 빈틈없이 딱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퇴비를 사용해 재배한 농가가 확대됐으며, 군은 '진도 황금봉'으로 상표 등록과 함께 진도 행복팍 하우스 등 시설 하우스 지원

소비자 직거래 등을 통해 3kg 28,000원, 5kg 45,000원에 활발히 판매되고 있으며, 48여톤을 생산, 올해 10억여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재배농가인 천을곡(진도군 지산면)씨는 “진도 황금봉은 청정지역의 따뜻한 비닷바람, 깨끗한 물과 땅에서 생산돼 한번 맛을 보면 깊은 맛과 향이 꼭 다시 찾게 된다”며 “내년부터 생산량을 늘리고 고품질의 진도 황금봉을 재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진도 황금봉의 품질을 보유했다.

한편 진도군은 부지화, 구기자, 단호박, 유자, 울금, 세발나물, 애플망고 등을 10대 지역전략 특화품목으로 지정, 집중·육성할 계획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 관산남초, 졸업생 7명 모두 장학생 1명당 약 50만원 장학금 “나누고 배려하는 학생으로 자라길”

장흥군 관산초등학교(교장 장웅기)는 지난 9일 정남진관에서 졸업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7명의 졸업생 모두가 5곳의 장학회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을 받으며 눈길을 끌었다.

관산초 출신으로 이루어진 각 장학회는 학생 수가 감소해가는 학교를 살리고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 주기 위해 졸업생을 대상으로 수년째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정남진 장학회(회장 이성현)에서 1명, 금포장학회(회장 박경식)에서 1명, 남부정년회(회장 김명기)에서 1명, 현수 장학회(회장 박유미)에서 1명,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이준철)에서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장흥=김홍필 기자

졸업생들은 2곳의 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게 되었으며, 졸업생 1명당 약 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이수빈 학생은 “졸업생 모두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 작은 학교라서 그런 것 같다. 관산남초 선배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 중학교에 가서도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웅기 교장은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조금이나마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모두 관산남초인으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학생들도 이 뜻을 이어 받아 나누고 배려하는 학생으로 자라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흥=김홍필 기자

완도군 '2018년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 최종 선정

완도수목원 난대숲 감성여행 통한 힐링 관광 매력 높여



완도군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 공모에 '완도수목원 난대숲 감성여행'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완도수목원 난대숲 감성여행'은 1991년에 개원한 전남도립 완도수목원의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이다.

완도수목원은 붉기시나무, 구실잣나무 등 770종의 난대성 자생식물이 분포하고 있는 한반도 최대 난대림(난대상록활엽수림) 자생지다.

군은 이곳에서 난대숲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힘들고 지친 현대인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완도군은 지난해 11월 세부실천계획을 확정 한 후 반딧불이 생태체험 프로그램, 생태체험 자원봉사 인력양성, 노르딕워킹 체험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완도군 핵심사업인 해양헬스케어 사업과 더불어 또 하나의 관광클러스터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여러 우수한 관광콘텐츠를 활용해 생태관광도시로의 입지를 굳혀 나갈 것 이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프로그램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무안군, 겨울방학재미있는 컴퓨터 코딩과정 교육

무안군은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1월 8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균형 및 남아북합주민센터 전산교육장에서 창의적 코딩학습 스크래치 교육을 개강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코딩학습 스크래치 교육은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프로그래밍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서 2018년 초·중·고 정규과정에 발맞추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높은 교육 열의로 교육생 모집공고 이틀만에 신청이 마감되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군에서는 참여 학생들이 코딩창의 개발능력(CDI)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한



경을 제공하고 또한 교육기회를 놓친 학생들을 위해 여름방학 기간에

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여수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54명 배치 읍면동 2명씩...내달부터 12월까지 주3일 감시활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전담인력 54명이 내달부터 전남 여수 27개 읍면동에서 활동을 시작한다.

여수시는 내달 1일 27개 읍면동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을 2명씩 배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감시원의 주요 임무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관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속,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종량제봉투 사용 지도 등이다.

활동기간은 배치일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주 3일 1일 4시간 근무한다.

감시원 모집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면서 불법투기 감시활동이 가능한 자로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여수=송기홍 기자

불법투기 감시원 배치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인건비 등에 2억8200만 원이 투입된다.

감시원 배치로 그동안 시 도시미화과와 읍면동 공무원 위주였던 불법투기 단속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도서지역을 제외한 25개 읍면동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1대씩 배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을 통해 감시 활동뿐 아니라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을 홍보하는데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도개 테마파크 Jindo Dog Theme Park
천연기념물 제53호

우리나라 토종개, 진도개의 공연과 경주를 보면서 진도개의 용맹함과 주인에 대한 충직함을 느끼며 진도개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진도개 공연 · 경주안내

구분	평일(월~금)	토요일	일요일
장소	평일공연장	주말공연장, 경주장	
공연	10:00, 15:00	13:00	
경주	-	13:20	
진행	진도개사업소 훈련사	진도개 공연단 진도개 경주단	

오시는 길!

도로명주소 | 전남 진도군 진도를 성죽굴길 30
내비주소 | 진도개테마파크
진도개사업소 | 061-540-6306

지하철: 서울-목포(2시간 30분 소요) 1일 3회, 목포-진도(1시간 30분 소요) 1일 9회 ※ 목포-진도 버스 이용

버스: 서울-진도(5시간 소요) 1일 4회, 목포-진도(1시간 소요) 1일 22회